

# 'LG V40 씽큐'로 담은 페루 100만뷰 돌파

## 남미의 아름다움 담은 영상 인기

LG전자는 자사의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40 씽큐(ThinQ)'로 남미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달 26일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 '경식 보라 커플'이 LG V40 씽큐로 촬영한 페루 여행 영상을 LG전자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했다.

약 2분 40초 분량의 영상은 페루의 매력을 생생하게 표현해 게시한 지 2주 만에 총 100만 뷰를 넘어섰다.

LG전자는 페루 관광청과 함께 영상을 제작했다. LG전자는 올해부터 외국 관광청들과 손잡고 그 나라의 매력을 알리는 동영상 제작에 인기를 끌고 있다. 1월 하와이, 3월 두바이, 6월 오스트리아 등 해외 국가들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만든 여행 영상을 공개했다.



LG V40 씽큐로 촬영한 페루 마추픽추 영상 캡처. /LG전자

현재까지 LG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해외여행 동영상 누적 조회 수는 450만 뷰에 달한다.

LG전자 관계자는 "LG V40 씽큐는 움직임

필요 없이 한 번에 다양한 화각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얇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여행에서 추억을 남기기에 제격"이라고 강조했다.

/구서훈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아듀, 와이브로! 안녕, 5G



## 기자 수첩

김 나 인  
(산업부)

우리나라 토종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인 와이브로(WiBro)가 1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KT에 이어 SK텔레콤도 지난 달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에 나섰다. 단말과 장비가 부족하고, 가입자도 줄어 더 이상 서비스 유지하는데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 서다.

지는 기술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 기대감은 남달랐다. 2006년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 만든 와이브로는 한때 가입자가 100만명에 달하기도 했다. 토종 기술이니만큼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정보통신 전략인 'IT 839'의 서비스 가운데 으뜸으로 꼽혔다. '손안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며 기술혁신의 중심에 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이런 와이브로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이유는 초기 음성 통신이 배제된 점 등 다양하지만, 결국 생태계 조성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와이브로와 경쟁

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은 1년여 만에 1000만 가입자를 돌파하며 생태계를 넓혀갔다. 그간 '에그'로 익숙한 와이브로 기능을 사용하는 넷북 등은 이미 단종된 지 오래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다시 와이브로를 떠올려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기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고속도로가 넓고 편해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죽은 길일 뿐이다.

인류학자 김현경이 쓴 '사람, 장소, 환대'에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리를 부여받고 환대를 통해 사회적 성원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기술에 적용해보면, 인정받는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실현될 장소와 사람들의 환대가 구현이 돼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5G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 정부와 통신사 모두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초보다 중요한 건 기술을 우리 삶에 어떻게 밀착시키느냐다.

/silki@metroseoul.co.kr

## 에스오일 에너지 빈곤층에 2억원 상당 난방유 지원

S-OIL은 에너지 빈곤층에 난방유를 지원하는 '호프 투 유(Hope to You)' 캠페인 기부금 2억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부금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추천을 받아 선정된 조손가정과 독거노인 270여세대에 난방유를 공급할 수 있는 주유상품권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수해가정을 방문해 직접 드럼통에 난방유 등유를 주유한 박봉수 S-OIL 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운

겨울을 난방 없이 보내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다는 말을 듣고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에스오일 청정등유를 꼭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 기쁘며, 우리 임직원의 작은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S-OIL은 정유업종의 특성과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겨울철에 등유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난방유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14일 박봉수 S-OIL 사장(왼쪽)과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저소득 가정 난방유 지원 전달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OIL

약 1070여 가정에 8억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제공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음 10월 8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정의 화목이다. 60년생 직장에서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 72년생 자식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 84년생 강을 건넜고 배를 소홀히 해서는 큰 낭패를 본다.
- 말**  54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66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꾸준히 노력. 78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성공으로 측정. 90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 소**  49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라. 61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 73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85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 양**  55년생 일회일비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히. 67년생 말은 하기 쉬워도 주위담을 수 없으니 조심. 79년생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91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상대가 알아준다.
- 호랑이**  50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면 된다. 62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나 꿈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74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86년생 생 두드려서 열릴 문이라면 있는 힘껏 두드려야 한다.
- 원숭이**  56년생 열흘 가는 꽃이 없으니 자만하지 마라. 68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다 보면 성과가 있다. 80년생 내용보다 포장에 중요할 때도 있다. 92년생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본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 토끼**  51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 63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때로는 고맙기도 하다. 75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서글픈 하루. 87년생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니 결단야 필요.
- 닭**  57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다. 6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81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 93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 돼지**  52년생 멀리서 찾아온 친척이 근심을 가져온다. 64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76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88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고인이 일시에 해결.
- 개**  58년생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떠 있음을 잊지 마라. 70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되니 주의. 82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94년생 숫자 6, 흰색이 오늘 행운을 준다.
- 돼지**  53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금물. 65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지 않아서 판단. 77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89년생 버릴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다.
- 돼지**  59년생 외로움보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안타깝다. 71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짐을 명심. 83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 95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   | 1 | 4 | 3 |   |   |   |
|   | 8 | 4 |   |   |   | 6 | 7 |   |
| 2 |   |   | 7 | 6 | 8 |   |   | 3 |
| 1 |   | 8 | 4 |   | 6 | 7 |   | 5 |
|   |   | 3 |   | 5 |   | 8 |   |   |
|   |   | 9 |   |   | 3 |   |   |   |
|   | 9 |   | 3 |   | 2 |   | 6 |   |
| 6 |   |   | 5 |   | 1 |   |   | 8 |
|   | 3 |   |   | 7 |   |   | 5 |   |

|   |   |   |   |   |   |   |   |   |
|---|---|---|---|---|---|---|---|---|
|   |   | 3 |   | 9 |   | 8 | 6 |   |
|   |   |   | 9 |   |   |   |   | 7 |
| 4 |   |   |   |   | 7 | 6 |   | 5 |
| 7 |   | 4 |   | 6 |   |   |   | 3 |
|   |   | 1 |   |   | 9 |   | 8 | 4 |
|   | 4 |   | 6 | 8 |   |   |   | 5 |
| 5 |   |   |   |   |   |   | 4 |   |
|   |   | 1 | 5 |   | 2 |   | 6 |   |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6      | 5 | 1 | 7 | 2 | 9 | 3 | 8 | 4 |
| 8      | 2 | 4 | 6 | 5 | 1 | 9 | 7 | 3 |
| 2      | 9 | 3 | 8 | 6 | 4 | 5 | 1 | 7 |
| 9      | 2 | 8 | 1 | 3 | 7 | 6 | 5 | 4 |
| 3      | 8 | 6 | 5 | 2 | 9 | 4 | 1 | 7 |
| 5      | 6 | 4 | 9 | 7 | 8 | 3 | 2 | 1 |
| 1      | 7 | 6 | 8 | 9 | 2 | 5 | 1 | 3 |
| 4      | 2 | 9 | 5 | 3 | 7 | 6 | 8 | 1 |
| 7      | 8 | 5 | 2 | 1 | 9 | 4 | 3 | 6 |
| 3      | 1 | 9 | 8 | 7 | 6 | 5 | 4 | 2 |
| 8      | 2 | 4 | 6 | 5 | 1 | 9 | 7 | 3 |
| 2      | 9 | 3 | 8 | 6 | 4 | 5 | 1 | 7 |
| 9      | 2 | 8 | 1 | 3 | 7 | 6 | 5 | 4 |
| 3      | 8 | 6 | 5 | 2 | 9 | 4 | 1 | 7 |
| 5      | 6 | 4 | 9 | 7 | 8 | 3 | 2 | 1 |
| 1      | 7 | 6 | 8 | 9 | 2 | 5 | 1 | 3 |
| 4      | 2 | 9 | 5 | 3 | 7 | 6 | 8 | 1 |
| 7      | 8 | 5 | 2 | 1 | 9 | 4 | 3 | 6 |
| 3      | 1 | 9 | 8 | 7 | 6 | 5 | 4 | 2 |

## 김상회의四季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삶은 한 번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되도록 시행착오는 줄여야 한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 적절한 시행착오의 횟수는 몇 번일까. 일반적으로는 삼 세 번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세 번만 참아도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 적어도 세 번은 되풀이해보는 것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7전8기라는 말도 있으니 오독이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끈기 또한 각자의 마음가짐에서 오는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이것만은 유념해야 하리라. 즉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후자들이 보면 시류에 편승을 해서 인기 있는 일들에 유행하고 있는 일들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물론 돈도 소요될 것이다. 예를 들면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올림픽 4강이라는 쾌거를 누렸었다.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부터 축구는 더욱 더 대한민국의 인기스포츠가 되었다. 어린 소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축구매니아가 되어 유소년 축구단에 가입을 하거나 장래 미래의 꿈을 축구선수로 정한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모든 운동이나 예체능이 그렇듯 최고의 선수나 최고의 엔터테이너가 되기까지는 필사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에 앞서 타고난 능력은 전제조건이 된다. 자질을 충분히 갖췄을 때 노력도 빛을 보며 결실이 나타나는 법이다.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과 노력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력까지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남이 이런 결과의 과정에 얼마나 많은 노고가 따랐는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최고의 지위에 올라서 받는 환대와 보상만을 보며 황홀해한다. 자녀가 가진 사주의 적성과 운을 살펴보는 것은 부모로서 필요한 일이라. 후회가 없기란 어렵지만 그래도 후회가 덜해야 미래 계획에 초석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             |                                 |
|-------------|---------------------------------|
|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 이 장 규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김교준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1721-9851, 9826 / 021721-9861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80호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4호      |